

#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

##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Junior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Efficacy

Eun-Hee Cho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직목표, 구직기술 요인에,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구직효능감의 전체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해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결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junior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efficac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students attending junior colleges in a metropolitan area,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lack of interest in employment barriers had an effect on job-seeking target, job-seeking skill factor, and job-seeking efficacy. Lack of job inform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factors in job-seeking efficacy, job-seeking target, job-seeking motive, job-seeking intensity, and job-seeking skill. Economic difficul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job-seeking motives. In career decisions, career confid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factors in job-seek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developing customized employment counseling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s in order to improve job-seeking efficacy in junior college students.

**Keywords** : Employment Barriers, Career Decision Level, Job-Seek Efficacy, Junior College Students, Employment Program

---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9820547@naver.com

Received November 9,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December 11, 2023

Published February 29, 2024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과 경력직 선호 등으로 고용 한파라 일컬어지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난으로 인해 현재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취고 있는' 청년층(15~29세)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는 대학생들의 자아실현 기회, 소속감 등을 박탈시키고 심리적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3]. 특히, 미취업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경험하고 구직과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행태가 증가하게 된다[4]. 따라서 대학생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 스트레스 등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심리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 중 구직 동기를 높여주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의 하나가 구직효능감이다.

구직효능감은 구직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5]. 이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6]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기효능감은 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내적 자신감을 뜻한다. 구직효능감은 취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자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데, 대학생 시기에 구직효능감을 갖는 것은 원활한 취업 준비를 위한 원동력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다[7]. 실제로 높은 구직효능감을 가진 대학생은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인 구직활동과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8,9].

특히, 전문대학생에게 구직효능감은 취업준비에 있어 자신감 증진과 긍정적인 직업생활을 이끄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10].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47조)의 학생은 2-3년의 짧은 기간 안에 학업 적응, 진로결정 및 전문기술을 익혀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최근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대학생은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인식때문에 자신감이 낮거나 취업장벽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12,13].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효율적인 취업준비와 구직성공을 위해서는 구직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대학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고, 학생의 취업성공이 전문

대학의 위상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만큼[14], 구직성과에 직결되어 있는 구직효능감은 전문대학 취업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해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진로발달 특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환경적 취업장벽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기 전공과 진로결정 수준이 확고할수록 구직효능감이 증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5,16].

취업장벽은 진로장벽의 하위개념으로, 개인이 취업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관적, 사회적, 환경적 갈등 요인의 종합으로 정의된다[17].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환경적 취업장벽이 진로결정 및 진로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직효능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입증되었다[5,15].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이 전공과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 정도를 의미한다[16]. Lee[12]의 연구에서는 확고한 진로계획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였다. Kim와 Lee[18]의 연구에서도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활동의 자신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에 있어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등의 진로발달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인의 세부 분류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핀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취업장벽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단일 요인 및 이분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문대학생의 구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데 한계를 보였다[19].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사회·맥락적으로 구직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탐색하는 것은 진로 발달 특성에 따른 심리적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의 상호 관계를 밝힌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상대적 설명력을 진단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결정수준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짧은 학

제로 인해 4년제 대학생보다 빨리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전문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13,20] 본 연구를 통해 맞춤형 구직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 진로결정 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 진로결정 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진로결정수준 및 구직효능감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 B시, Y시에 소재한 2-3년제 사립 전문대학 2곳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단일 학교를 선정할 경우 그 학교의 고유 특성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해 해석의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2개 전문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의 취업과 효능감에 대해 연구한 Cho[3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대상이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도록 선정된 사립전문대학 2곳 학생들의 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예·체능계열, 보건계열로 범주화하였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20	62.82
	Female	71	37.18
Grade	2	79	41.36
	3	112	58.64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5	23.56
	Natural Sciences & Engineering	111	58.11
	Arts & Physical Education	18	9.42
	Health	17	8.91
	All	191	100

연구를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만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 당시 조기 취업자, 군 입대자, 휴학자는 제외시켰다. 총 205부 설문지를 받아 응답이 누락된 14부를 제외한 19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120명(62.82%), 여학생 71명(37.18%)으로 남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79명(58.64%), 3학년 112명(58.64%)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45명(23.56%), 자연·이공계열 111명(58.11%), 예체능계열 18명(9.42%), 보건계열 17명(8.91%)으로 상대적으로 자연·이공계열의 비율이 높았다.

### 2.3 연구도구

#### 2.3.1 취업장벽

취업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Kim[21]의 대학생 진로탐색 장애 검사(KCBI)도구와 Ko[17]의 취업장벽 검사 문항을 폴리텍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Kim[22]의 취업장벽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경제적 어려움(2문항), 나이 문제(3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취업 후 대인관계 어려움(3문항), 흥미 부족(7문항), 직업정보 부족(4문항), 신체적 열등감(5문항), 자기 확신 부족(2문항), 미래불안(3문항) 9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대인관계 어려움 .82, 자기 확신 부족 .85, 경제적 어려움 .72, 타인과의 갈등 .79, 직업정보부족 .82, 나이문제 .79, 신체적 열등감 .77, 흥미 부족 .89, 미래 불안 .86로 나타났다.

#### 2.3.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외[23]가 개발하고 Ko[24]가 수정 및 번안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진로확신 수준(2문항), 진로미결정(16문항) 2개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확신수준(1-2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에서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군 선택에 대한 확신이 높음을 의미하며, 진로미결정수준(3-18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직업군 선택이 구체적이지 않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의미한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진로확신 .81, 진로미결정 .88로 나타났다.

### 2.3.3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 측정하기 위해 Cho[25]의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구직목표(5문항), 구직동기(6문항), 구직강도(4문항), 구직기술(4문항)의 4개 요인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구직목표는 희망하는 직무, 직업에 관해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26]. 구직동기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내적인 힘을 뜻한다[27]. 구직강도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자원을 활용하여 회사에 원서를 내거나 면접 횟수 등 구직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의미한다[28]. 구직기술은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구직방안, 구직활동에 관한 인식, 실행 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구직역량[29,30]과 직업인으로써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능력으로서의 직업역량으로 정의한다[31]. 이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구직목표 .88, 구직동기 .81, 구직강도 .82, 구직기술 .84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각의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도출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첫 번째 연구문제, 취업장벽,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두 번째 연구문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표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r=-.71, p<.001$ ), 직업정보 부

Table 2. Correlation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job-seeking efficacy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46***	1													
	3	.42**	.60***	1												
	4	.35**	.55***	.58***	1											
Employment Barriers	5	.33*	.62**	.54***	.53***	1										
	6	.38**	.43**	.33*	.30*	.29*	1									
	7	.14	.40	.39*	.31*	.21	.16	1								
	8	.02	.03	.05	.23	.16	.47***	.23	1							
	9	.18	.14	.20	.26*	.15	.17	.48***	.58	1						
Career Decision Level	10	-.54***	-.60***	-.54***	-.44**	-.32*	-.19	-.22*	.19	-.04	1					
	11	.41**	.72***	.52***	.46***	.43**	.46***	.38**	.13	.21	-.56***	1				
Job-seeking efficacy	12	-.71***	-.71***	-.48***	-.49***	-.45***	-.23	-.20	.09	-.11	.82***	-.60***	1			
	13	-.46***	-.61***	-.48***	-.42**	-.40**	-.18	-.13	.12	-.16	.76***	-.47***	.73***	1		
	14	-.30***	-.48***	-.29*	-.19	-.29*	-.07	-.13	.09	-.06	.56***	-.31*	.48***	.84***	1	
	15	-.53***	-.60***	-.36**	-.31*	-.35**	-.03	-.12	.17	-.16	.70***	-.43**	.78***	.78***	.67***	1

\*\*\* $p<.001$ , \*\* $p<.01$ , \* $p<.05$

1. Lack of interest 2. Lack of job information 3. Future anxiety 4. Difficulty in personal relation 5. Lack of self-clarity 6.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7. Economic hardship 8. Age issue 9. Physical difficulties 10. Career clarity 11. Career indecision 12. Job-seeking target 13. Job-seeking motive 14. Job-seeking intensity 15. Job-seeking skill

족( $r=-.71, p<.001$ ), 미래불안( $r=-.48, p<.001$ ), 대인관계 어려움( $r=-.49, p<.001$ ), 자기확신 부족( $r=-.43,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60, p<.001$ )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 $r=.82, p<.001$ )이 나타났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동기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r=-.46, p<.001$ ), 직업정보 부족( $r=-.61, p<.001$ ), 미래불안( $r=-.48, p<.001$ ), 대인관계 어려움( $r=-.42, p<.001$ ), 자기확신 부족( $r=-.40,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47, p<.001$ )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 $r=.76, p<.001$ )이 나타났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강도는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r=-.30, p<.001$ ), 직업정보 부족( $r=-.48, p<.001$ ), 미래불안( $r=-.29, p<.05$ ), 자기 확신 부족( $r=-.29, p<.05$ )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31, p<.05$ )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 $r=.56, p<.001$ )이 있었다.

구직효능감 중 구직기술은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 $r=-.53, p<.001$ ), 직업정보 부족( $r=-.60, p<.001$ ), 미래불안( $r=-.36, p<.05$ ), 대인관계 어려움( $r=-.31, p<.05$ ), 자기확신 부족( $r=-.35,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 수준 중 진로미결정( $r=-.43, p<.05$ )과 부적 상관이, 진로확신수준과 정적 상관( $r=.70, p<.001$ )이 나타났다.

### 3.2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분산팽창지수 VIF는 10 이하(1.53~5.89)이었고, 공차 TOL은 0.1이상 (.18~.82)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였다.

첫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5%로 나타났고( $F=24.94, p<.001$ ), 취업장벽 중 흥미부족( $\beta=-.37, p<.01$ ), 직업정보 부족( $\beta=-.35, p<.01$ ),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 $\beta=.48,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흥미와 직업정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확신을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구직목표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Table 3.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target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Variable	Job-seeking target		
	B	$\beta$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32	-.37***
	Lack of job information	-.40	-.35**
	Future anxiety	.14	.13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06	-.06
	Lack of self-clarity	-.02	-.03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17	.17
	Economic hardship	.09	.08
	Age issue	-.05	-.07
	Physical difficulties	-.00	.00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46
	Career Indecision	-.08	-.06
F		24.94***	
$R^2$		.55	
adj. $R^2$		.52	

\*\*\* $p<.001$ , \*\* $p<.01$ , \* $p<.05$

둘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중 구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나타났고( $F=8.87, p<.001$ ), 취업장벽 중 직업정보 부족( $\beta=-.31, p<.05$ ), 경제적 어려움( $\beta=.21, p<.05$ ),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 $\beta=.64,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직업정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수록,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Table 4.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motive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Variable	Job-seeking motive		
	B	$\beta$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03	.04
	Lack of job information	-.30	-.31*
	Future anxiety	.01	.01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01	-.01
	Lack of self-clarity	-.06	-.08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01	-.01
	Economic hardship	.19	.21*
	Age issue	.08	.12
	Physical difficulties	-.11	-.13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53
	Career Indecision	.10	.10
F		8.87***	
$R^2$		.57	
adj. $R^2$		.49	

\*\*\* $p<.001$ , \*\* $p<.01$ , \* $p<.05$

자신이 원하는 직장 및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내적 구직동기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Table 5.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 search intensity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Variable	Job-seeking intensity	
	B	$\beta$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03 .03
	Lack of job information	-.49 $^*$ -.43 $^*$
	Future anxiety	.06 .06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19 .19
	Lack of self-clarity	-.06 $^*$ -.08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11 .12
	Economic hardship	.07 .07
	Age issue	-.06 $^*$ -.08
	Physical difficulties	-.07 $^*$ -.07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Career Indecision		.19 .16
F		2.92 $^{**}$
$R^2$		.30
adj. $R^2$		.16

$^{***} p < .001, ^{**} p < .01, ^* p < .05$

셋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중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0%로 나타났고( $F=2.92, p < .01$ ), 취업장벽 중 직업정보 부족( $\beta = -.43, p < .05$ ),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 $\beta = .55,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것은 직업정보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즉 구직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중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6%로 나타났고( $F=8.51, p < .001$ ),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 $\beta = -.24, p < .05$ ), 직업정보 부족( $\beta = -.41, p < .05$ ),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 $\beta = .50, p < .01$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흥미와 직업정보에 대한 부족을 덜 인식하면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은 전문대학생일수록 구직활동에 필요한 방법론 및 기술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Influences of employment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job-seeking skill among the Job-seeking efficacy (N=191)

Variable	Job-seeking skill	
	B	$\beta$
Employment Barriers	Lack of interest	-.20 $^*$ -.24 $^*$
	Lack of job information	-.45 $^*$ -.41 $^*$
	Future anxiety	.19 .19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10 .10
	Lack of self-clarity	-.07 $^*$ -.10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21 .22
	Economic hardship	-.09 $^*$ -.09
	Age issue	.05 .06
	Physical difficulties	-.13 $^*$ -.14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clarity
Career Indecision		.12 .10
F		8.51 $^{***}$
$R^2$		.56
adj. $R^2$		.48

$^{***} p < .001, ^{**} p < .01, ^* p < .05$

#### 4.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전문대학생의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이 구직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직업 정보가 부족함을 덜 인식하거나, 미래 불안을 덜 느끼거나, 자기 확신 등 심리적 취업 장벽을 낮게 지각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구직효능감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5]와 맥을 같이 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16]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진로결정 수준의 모든 변인에서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반면, 취업장벽 중 심리적 장벽 외 나이, 신체적 열등감, 중요한 타인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환경적 장벽 변인들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장벽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환경적 장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5,19,32], 취업장벽과 진로결정

수준을 함께 알아본 본 연구에서는 취업장벽 중 환경적 장벽과의 상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심리적 장벽과 진로결정수준에서만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전문대학생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대학생의 경우 나이문제, 중요한 타인 갈등, 신체적 열등감 등 현실적인 장벽보다는 미래불안,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장벽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이 인식한 심리적 장벽에 따라 구직효능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직업진로상담 장면에서 개인별 심리적 장벽 문제 및 원인이 무엇인지 차별적으로 진단한 후 요인별 구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취업장벽 중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 구직목표와 구직동기,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직업정보 부족을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검증한 Lee[33]의 연구, 폴리텍 대학생의 직업정보 부족이 구직효능감과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Jun[3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최근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구직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유용한 직업 정보를 선별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한다[19]. 이는 중요한 취업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구직문제를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양질의 직업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정보 활용법을 안내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현장기반의 전공과 관련된 직·간접적 직무체험, 인턴십, 직무 멘토링 등 직업정보 탐색 범위의 다원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취업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 및 취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Yoo[34], Kim[22]의 연구와 유사한 반면, 경제적 애로가 구직효능감을 방해한다는 Jun[32]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 요인이 구직을 방해하는 장벽이 아닌 오히려 구직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돕고 구직동기를 강하게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취업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표, 구직기술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흥미부족은

대학생의 진로목표 및 구직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Ryu[35], Jun[3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Kim[26]은 흥미 부족이 명확한 구직목표 설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구직을 지연시켜 취업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취업하더라도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은 일자리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흥미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직 자신감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제안하여, 구직목표 설정 및 구직기술을 증진시키는 등의 개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즉 구직목표와 구직동기,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계획이 구직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 Lee[12]의 연구, 전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가 취업가능성을 높혀 구직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36]와 맥을 같이 한다. 전문대학생의 진로확신 수준은 구직행동을 촉진시켜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취업 이후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37].

본 연구에서 구직기술 방법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가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고용 상황에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자기 신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생은 2-3년의 '압축된' 기간 안에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및 취업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다[11]. 그러므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에서는 이들이 확고한 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존감, 효능감 강화 등 정서·심리적 지원과 체계적인 구직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극복하고 원활한 취업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구직효능감을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에게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과 진로 확신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 전략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연

구결과 첫째, 전문대학생이 심리적 취업 장벽을 낮게 지각하면서, 진로확신수준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 의 상관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 장벽 중 흥미 부족은 구직효능감 중 구직목표, 구직기술 요인에, 직업정보 부족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에 부적 영향 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수준 중 진로확신수준은 구직효능감 전체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별 취업장벽 특성 및 진로확신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가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대학생의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부터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취업 목표의 설계, 자기 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그 적용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대학 진로지원 등 환경적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FGI) 등 질적 연구와 함께 병행한다면 전문대학생의 구직 연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S. J. Yoon, J. W. Lee, S. H. Ha, S. H. Hong, "Analysis of Changes in the Subtypes of Job Search Self-efficacy of Long-term Unemployed Youth Using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Influencing Factor",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23, No.2, pp.109-140, 2023. DOI: <https://doi.org/10.22914/ilp.2023.23.2.005>
- [2] S. E. Lee, The number of 'rested' youths who are neither looking for a job nor finding a job surpasses 400,000 again, Ytn, [cited 2023 Nov 1],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011259207479](https://www.ytn.co.kr/_ln/0102_202311011259207479) (accessed Nov. 3, 2023)
- [3] J. H. Kim, E. G. Park, "The effects of achievement type of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on the perceived social isolation i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257-284,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3.257>
- [4] J. R. Nam, "A Study on the Impact of COVID-19 Shock on Young Adult NEETs (NEET)", Korea Labor Panel Conference, Online YouTube, Korea, pp.23-54, Oct. 2021.
- [5] M. S. Song, H. S. Jung,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3, pp.160-168,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3.160>
- [6]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97.
- [7] S. S. Bae, S. I. Chang, "The Effects of Job Search Efficacy and Job Search Outcomes Obtained by Participating in Job Search Supporting Programs of Senior Students in Univers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21, No.5, pp.115-136, 2014. DOI: <https://doi.org/10.14396/jhrmr.2014.21.5.115>
- [8] A. D. Vinokur, M. Van Ryn, Gramlich, E. M, Drie, R. H, "Long-term follow-up and benefit-cost analysis of the JOBS program: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6, pp.213-219, 1991.
- [9] C. R. Wanberg, R. Kanfer, M. Rotundo,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 Search Competencies, and Job 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4, No.6, pp.897-910, 1999.
- [10] S. E. Jang, "The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job-seeking anxiety in juni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the career support of colleg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35-36, 2006.
- [11] K. K. Kim,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Job Seeking Efficacy for Juni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3 2006.
- [12] H. Y. Lee,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Work Values on Job See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16, No.3, pp.39-65, Sep. 2021. DOI: <https://doi.org/10.21329/khrd.2021.16.3.39>
- [13] J. H. Ha, C. W. Han, "Structural Relations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8, No.2, pp.165-186, 2022. DOI: <http://dx.doi.org/10.29318/KER.28.2.7>
- [14] M. S. Yoon, *The hierarchical liner relationship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with the job search behavior of graduate-to-be junior colleges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2, 2017.
- [15] N. Y. Kim, M. J. Kim, M. H. Park,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on Career Dec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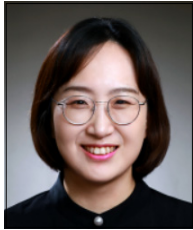
- Levels: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24, No.4, pp.31-50. 2020.  
DOI: <http://dx.doi.org/10.35184/kshce.2020.24.4.31>
- [16] Y. Y. Park, D. H. Lee, “The Role of Job-Searc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85-101. 2014.
- [17] W. S. Go, “A study on the e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at perceived on the employment barri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44-45, 2015.
- [18] M. H. Kim, J. K. Le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Perceived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Career Decision Level,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113-129. 2017.
- [19] J. S. Kim, J. C.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variable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4, pp.515-530.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4.515>
- [20] B. H. Jeong, J. H. O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Korean Employment and Career Association*, Vol.11, No.2, pp.131-152. 2021.  
DOI: <https://doi.org/10.35273/jec.2021.11.2.006>
- [21] E. 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1, pp.219-240, 2001.
- [22] H. K. Kim, *The Effects of Employment Barriers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Focusing on Job Applicants in Korea Polytechnic Colleg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Korea, pp.29-35, 2018.
- [23] S. H. Osipow, C. G. Carney, J. Winer, B. Yanico, M. Koschier,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1980.
- [24] H. J. Ko,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370, 1993.
- [25] Y. S. Ch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s job search supporting programs and job seeking efficacy*,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pp.23-24, 2012.
- [26] G.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priority and job search clarity: for job seekers using the employment support center”, *Labor Policy Research*, Vol.9, No.3, pp.113-141. 2009.  
DOI: <https://dx.doi.org/10.22914/jlp.2009.9.3.005>
- [27] G. B. Park, Job search efficiency test report, Seoul: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Central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orea, 2001.
- [28] H. R. Song, *The Effects of Employment Barriers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Focusing on Job Applicants in Korea Polytechnic Colleg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6-7, 2004.
- [29] J. Y. Jeon, *Verification of job search efficacy by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support program*,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pp.10-11, 2014.
- [30] V. M. Latham, “The role of personality in the job search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57th, Chicago, IL, ED259247, pp.2-4, May 1985.
- [31]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Analysis of the National Core Curriculum on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Basic Research(1998-07),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15-20. 1998.
- [32] C. Y. Ju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0, No.1, pp.1-14. 2013.
- [33] M. 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Mokpo, Korea, pp.44-45, 2018.
- [34] S. H. Yoo,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Search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0, No.3, pp.97-116. 2011.
- [35] E. J. Ryu,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s, Career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Beauty-rela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2, No.3, pp.157-168. 2016.
- [36] J. H. Jeong, S. B. Lim,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Level,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87-105. 2015.
- [37] J. H. Kim, H.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2, pp.619-637. 2015.
- [38] J. H. Cho,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Anxiety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21, pp.687-701.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21.687>

---

조 은 희(Eun-Hee Cho)

[정회원]



- 202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23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직업기초역량교육, 노동시장 성과, 직업교육, 평생교육